

같이 보기

: 현장탐방 - 인천산업보건센터

# ‘늦깎이’ 인천산업보건센터 지역 산업보건의 중심에 다가서다

글 정청천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외홍보팀



6대 광역시 인천의 산업보건시장은 치열한 각축장이다. 짧은 기간에도 인천 산업보건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늦깎이' 대한산업보건협회 인천산업보건센터를 소개한다.



### 늦깎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산업보건센터(이하 인천센터)는 2019년 1월 문을 열었다. 60년 역사의 협회가 광역 시·도 중심으로 전국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천센터의 출발은 상대적으로 늦었다. 시작도 미약했다. 작업환경측정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인원으로 구성된 환경위생팀이 출발선상의 조직 전부였다. 센터장을 포함한 6명이 일했다. 2019년 하반기에 보건관리팀이 만들어지면서 현재의 2팀 체제가 됐다. 건강검진-작업환경측정-보건관리대행 등 산업보건 기본구조에서 건강검진은 채워지지 않았다.

### 1/27(27분의 1)

인구 300만 명의 인천광역시에는 16개 산업단지에 20만 개의 사업체가 있다. 작은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8.8%를 차지한다. 전체 종사자의 70%가량인 57만여 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인천지역 산업보건시장의 경쟁구도는 치열했다. 인천지역에 등록된 작업환경 측정기관만 27곳에 달했다. 2020년 이후에만 5곳이 지정 측정기관으로 새롭게 등록됐다. 보건관리 대행기관도 13개에 달한다. '옆친 데 댄친 격'으로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은 항공분야 불황을 불러왔고, 인천센터 관리사업장의 감소로 이어졌다. 지역 산업보건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미미했다. 2020년 기준 지역 작업환경측정 분야에서 인천센터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3%가량에 불과했다.

## 융합·집단지성이 만들어 내는 하모니

### ●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한 사업 활성화 방안 찾기

구성원 간 소통과 융합은 조직성장의 전제조건이다. 인천센터는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구성원 간에 부드럽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그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아이디어를 찾아 나가는 방식이다.

#### 1단계

##### 분위기누그러뜨리기(Ice Breaking)

인천센터는 팀원 간 주먹 쥘기, 초상화 그리기를 활용했다.

#### 2단계

##### 아이디어 발산

아이디어 발산법은 ERRC를 활용했다. ERRC는 제거(Eliminate)·감소(Reduce)·증가(Raise)·창조(Create)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보건관리팀 사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주고 제거(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감소(R,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할 것), 증가(R, 더 추가하고 싶은 요소), 창조(C, 새롭게 해야 할 요소) 등 항목으로 분류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았다.

#### 3단계

##### 아이디어 평가와 결정

팀원들이 낸 의견에 대해 다중 투표로 아이디어를 결정하고, 결정된 아이디어는 실행계획서로 구체화했다.

## 같이 보기

: 현장탐방 - 인천산업보건센터

### 선택과 집중, 서비스 강화

지역 산업보건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천센터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급선무였다. 가만히 앉아서 고객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발품을 팔았다. 인천센터 과장급 이상 직원은 16개 산업단지 공단을 찾아다녔다. 아울러 국고 지원이 가능한 작은 사업장에 집중하는 전략도 구사했다. 작은 사업장에 국고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인천센터 전문 인력이 유해 요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지도했다. 고객서비스 강화라는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했다. 안전보건 기관과 사업장 합동 점검을 하면서 만족도를 높이고 유대관계를 형성해 신규사업장을 유치해 나갔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확장의 호재로 작용했다. 공공기관과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외형도 바뀌었다. 사무실 리모델링을 2022년 주요 과제로 진행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좁고 불편했던 사무공간을 넓히고 산뜻하게 꾸몄다. 직원 업무환경 개선과 고객서비스 강화 차원이었다. 인천센터는 2개 팀을 중심으로 필요 인원을 충원하면서 지역 사업장에 대한 산업보건 서비스를 강화했다. 6명의 '미니센터'는 26명(2022년 11월 기준)이 일하는 '중견센터'로 변모했다.

### 인천산업보건센터

#### 사람들



#### ● 오영덕 보건관리팀장



“산업보건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인천센터가 지역에서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 ● 김종성 환경위생팀장



“팀원들을 믿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이끌어갈 인천센터, 나아가 대한산업 보건협회의 주축으로 성장하게 될 그들의 모습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느새 지역 산업보건의 한 축

노력은 조금씩 결실로 이어졌다. 한국지엠(주)의 작업환경측정과 인천공항 운영서비스의 보건관리대행 등 대형사업장 유치에 인천센터의 입지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작업환경측정 관리사업장은 2019년 60곳에서 2022년 10월 260곳으로, 보건관리대행 사업장은 2019년 82곳에서 2022년 10월 190곳으로 각각 늘었다. 보건관리대행 인원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2년 10월 1만 6,411명으로 늘었다. 전망도 밝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했던 항공 산업이 되살아나면, 산업보건 수요는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최수현 센터장은 “2~3년을 걸돌았다면, 이제는 인천 산업보건 시장에 제대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

66

작업환경측정  
관리사업장은  
2019년 60곳에서  
2022년 10월 260곳으로,  
보건관리대행 사업장은  
2019년 82곳에서  
2022년 10월 190곳으로  
각각 늘었다.  
보건관리대행 인원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2년  
10월 1만 6,411명으로  
늘었다.

### ‘고독한 전략가’의 마지막 무대

99

#### ● 최수현 인천산업보건센터장



최수현 인천산업보건센터장의 답은 도돌이표처럼 한 곳으로 되돌아왔다. 어떤 질문에도 건강검진 패러다임 변화와 이에 대한 협회의 전략을 제시했다. ‘기-승-전-건강검진’이었다. 어쩌면 당연했다. 그는 협회에서 보낸 30년의 대부분을 건강검진 분야에서 일했다. 이른바 ‘건강검진 통(通)’이다. 그는 1992년 임상병리사로 협회에 첫발을 디뎠다. 2000년부터는 15년 가량을 협회 본부 건강진단 부서에서 일했다. 2016년부터 3년여를 한마음혈액원에서 일한 뒤 2019년에 경인지역본부 건강진단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20년부터 2년 동안 천안산업보건센터장을 지낸 뒤 올해(2022년) 1월부터 인천산업보건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특히 2010년대 초반 종합검진센터 건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건강검진 분야에서의 높아지는 눈높이를 맞추고 협회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검진센터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종합검진센터는 이런저런 이유로 미완에 그쳤다. 그에게는 아직도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정년퇴직 1년을 앞둔 올해 1월 인천산업보건센터장으로 발령받았다. “암담하고 막막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에게 건강검진이 없는 센터라니...” 그것도 설립 4년 차를 맞이하는 사실상의 신생센터나 다름없었다. 협회 역사와는 달리 인천센터는 인천지역에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이었다. 지역 산업보건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업체들과의 경쟁도 치열했다. 최 센터장은 낯 놓고 있을 수 없었다. 센터장만 바라보고 있는 후배들에게 활로를 열어줘야 했다. 시각도 바꿨다. ‘경쟁 기관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먹거리’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의 전략은 네트워크이었다. 전략은 일단 성공이었다. 최 센터장은 “인천센터를 향한 차가운 시선은 부드러워졌고 센터 운영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수현의  
자성과 아쉬움

- 1. 산업보건 제도와 정책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는가?
- 2. 변화의 시류 속에서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가?